

-(으)라고 하다

~하라고 하다 — 명령의 간접 인용

지시나 명령을 전달합니다. 문어체 명령형 -(으)라를 바탕으로 하며, 다음이 아닙니다: -아라/어라 또 누구나 걸려 넘어지는 불규칙 동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라고 하다	가다 → 가라고 해요
받침으로 끝남	-으라고 하다	읽다 → 읽으라고 해요
ㄹ로 끝남	ㄹ 유지	만들다 → 만들라고 해요
부정	-지 말라고 하다	가지 말라고 했어요
나에게 주기	달라고	책을 달라고 했어요
다른 사람에게 주기	주라고	동생한테 주라고 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모음 어간은 -라고, 받침 어간은 -으라고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을 유지합니다: 만들라고 했어요. 부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 -지 말라고.

평서문 인용과 마찬가지로 원래 말의 높임 정도는 사라집니다. 선생님이 가세요라고 했던 가라고 했던 가라고 했어요로 전달합니다.

이제 불규칙한 경우입니다. 주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주는 대상이 말한 사람 자신이면 전달 형태는 달라고가 됩니다: 친구가 책을 달라고 했어요 (친구가 자기에게 책을 달라고 했다).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주라고 그대로입니다: 친구가 동생한테 책을 주라고 했어요.

■ 예문

- 1 선생님이 일찍 오라고 하셨어요.
- 2 의사가 매일 운동하라고 했어요.
- 3 어머니가 저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.
- 4 친구가 그 책을 달라고 했어요.
- 5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어요.
- 6 부모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어요.

■ 비교

-(느)ㄴ다고 하다

평서문 인용과 명령문 인용의 차이입니다. 한 음절 차이로 말한 사람이 한 행동이 달라집니다.

간다고 했어요. (간다고 말했다) / 가라고 했어요. (나에게 가라고 했다)

-아라/어라

전달 형태는 -아라/어라가 아니라 -(으)라를 바탕으로 합니다. 그래서 먹어라는 먹으라고로 전달하며, 먹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.

먹어라. → 먹으라고 했어요.

달라고 vs 주라고

주는 방향이 형태를 결정합니다. 말한 사람이 자기가 받기를 원하면 달라고, 제3자에게 주라는 것이면 주라고를 씁니다.

책을 달라고 했어요. (자기에게 달라고 함) / 동생한테 주라고 했어요. (동생에게 주라고 함)

■ 주의

✗ 선생님이 일찍 와라고 하셨어요.

○ 선생님이 일찍 오라고 하셨어요.

명령을 전달할 때는 구어 -아라/어라가 아니라 -(으)라를 씁니다. 와라는 오라고가 됩니다.

✗ 친구가 그 책을 주라고 했어요. — ‘자기에게 달라’는 뜻으로

○ 친구가 그 책을 달라고 했어요.

받는 사람이 말한 사람 자신이면 주다는 달라고가 됩니다. 주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뜻입니다.

✗ 사진을 찍지 않으라고 했어요.

○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어요.

부정 명령은 말다를 바탕으로 하므로 전달 형태는 -지 말라고입니다.